

존재의 평온(5부)

| 진 클라인 | 박승숙 옮김 |

우리는 주객관계로 자신을 대상화하여 습관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나 방어할 자신이 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온전한 자유가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5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힘들고 강도 높은 활동을 할 때에는 소위 대상 세계인 외부 세계로 주의가 빨려가는 듯합니다. 엔진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멈춰버리는 것처럼요. 이처럼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주의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약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객관계에 있습니다. 순수한 주의를 변치 않으며 시간이란 것은 모두 항구적으로 그 어떤 상태도 아닌 비상태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표면적인 부분에 집중하느라 전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과를 찾느라 주객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추구는 얇 자체에 대한 자각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의미에서 활동은 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은행에 가는 것도 돈을 인출하기 위함이지, 이유 없이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생각은 기능적이고 계획적이겠지요. 구두를 닦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한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행위이며 명백히 어떤 결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일에 연루되거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일을 할 뿐이지요.

꼭 해야 할 일인 실질적인 생각과 직관적인 생각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직관적인 생각이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발적인 사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고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없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

가 말한 ‘기다림 없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있음만이 존재하며 어떤 것도 투사하지 않는 순수한 귀 기울임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자발적인 생각을 확립하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인 생각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일종의 이해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에 직면하면 주객의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자발적인 생각, 자발적인 행동은 심미적이지도 윤리적이며 기능적입니다. 그러나 예고가 들어와 “내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지 알아보겠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떤 구조와 틀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잘 살펴보면, 당신이 저절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의심할 수 있게 되는지 알 것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노력을 하면 긴장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긴장이 일종의 방어라는 뜻으로 비취집니다. 그러면 긴장할 때 저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이미지를 방어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달리 방어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대상화합니다. 당신은 감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당신이 만든 이미지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할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적이 제거되면 방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알몸을 방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무자격상태에서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주객 관점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존재는 결코 대상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요함과 자각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자발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순간에는 의도가 담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의도가 섞인 듯 보일지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본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내가 꽃을 보면, 내가 곧 꽃이 되는 식으로) 이름과 형태가 사라졌을 때, 한 송이 꽃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도 형태와 이름이 있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와 이름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때 남는 것이 변함없는 자각이며, 그것은 당신과 꽃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꽃과 같이 당신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모든 생명체와 하나이며 이러한 동일성 안에서 생명체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인간과 다른 생명체사이에 구별은 있지만 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변함없는 현존 안에서 나타나지만 하나의 도구로써 나타날 뿐입니다.

반복은 주객의 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객으로서의 '나'가 안전을 찾기 때문에 상황이 같은 형상을 유지하고 같은 형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추구를 멈추어 주객의 자리를 일단 벗어나면, 당신은 반복되는 모든 일이 환상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자격 상태에서 모든 행동은 시공간과 관계없이 저절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반복이나 미래에 대한 예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실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특정한 일을 맡아야 한다는 직관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먼저 직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직관 안에는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지성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배우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드라마의 대본을 읽고 심리적, 지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연기해야할지 이해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전반적인 심리적 배경이 당신 안에 남게 됩니다. 당신은 때에 맞춰 이따금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그 배경의 분위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의 분위기가 “나는 이 일을 맡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의 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은 상황이 완벽한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관은 일반적인 사고 과정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생각은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직관에 의해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은 시공간의 순서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어떤 순간에 캔버스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화가가 모든 세부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주된 요소를 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는 시공간 안에서 자신이 본 그림을 구현합니다.

창조의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이 있지만 때로는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려 더는 드라마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점이

조각나버렸을 때 어떻게 전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배경을 잊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는 배경을 떠났으니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런 류의 직관을 고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적으로 직관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느낌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전체적인 느낌을 잃어버려 기억으로 별충하려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술가들에게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지각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이용하여 작곡이나 그림 및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떠나서 지성이나 과거 및 기억으로 별충하려들면 작품이 종종 혼란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작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직관을 분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관을 고치거나 하나의 틀에 집어넣지 마세요. 그 주변에 어떤 윤곽선도 넣지마세요. 직관을 완전히 열어놓아 두세요.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관의 실현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며 당신의 실질적인 두뇌와 육체 모두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행위 및 생각, 필요한 모든 참고문서의 이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이 직관력입니다.

처음에는 직관이 당신의 태도나 활동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 생애에 대한 직관을 갖게 되는 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당신의 일생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 예술가처럼 세밀한 것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당신은 역동적인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 긴장감은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이 방의 규모를 감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지와 동일시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찰할 때, 삶이 다가오

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 여성, 전문가, 부자 등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순간, 당신은 되어있는 것과 앞으로 되어갈 것의 악순환 속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위스에서 한 주를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어떤 것에도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다면 그때의 일반적인 느낌이 어느 시점에 당신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느낌은 세부적인 기억들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전체적인 기억에서 세부적인 기억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부적인 기억과 동일시한다면 결코 전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기억의 산물인 지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음악을 듣고 시를 읽을 때, 그냥 음악을 듣고 시를 읽으세요. 그러면 심미적인 기쁨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덧붙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상황이 일어나면 행동이 발생하는데, 열린 마음상태에서 행동은 그 상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 결코 본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

이 흐름¹⁾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문답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1) 언급된 '흐름'이란 말은 존재 간에 더 이상 분리가 없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다. 질의응답의 대화에서, 우리는 보통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을 유지한 채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질문과 대답 모두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실 이 현재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에 고착된 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질문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이 흐름에 따라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 질문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의문은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 존재하는 언어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것이지요.

스승이 없는 사람이나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를 든다면, 이런 흐름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군요. 당신이 방에 있는 파리 한 마리를 본다고 합시다. 공간에 있는 파리의 움직임에 쫓을 때,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으므로 당신은 순수하게 바라봅니다. 그저 파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하다보면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요. 당신은 자신이 관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커다란 해방감을 이끌어냅니다.

스승은 사고 과정의 부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생각과 지각의 이면, 사고 과정의 이면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승이 강조하는 것은 관찰대상인 공간에 있는 파리가 아니라 관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많은 예상을 합니다. 관찰하는 동안, 결과를 투사하고 그 생각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관찰은 결과에 대한 생각없이 보는 것이므로 관찰자

와 관찰대상 사이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당신이 투사하는 전부가 사라지면, 당신이 주시하는 것이 밖이 아닌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본래의 통찰력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관찰자와 관찰대상 사이에 아무런 역학관계가 없으므로, 당신이 관찰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찰 그 자체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경험이나 흐름은 의지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합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투사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모든 의지를 사라지게 하자마자, 자신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율적이 됨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과정 없이 어떻게 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왜 투사를 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충족되지 못한 느낌에서 생겨납니다.

네, 얻고자 하는 게 맞습니다. 스승은 예상 밖의 일을 통해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 니까? 놀라움은 스승이 갑자기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혹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느끼는 감정인가요?

아니면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할 때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일체 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빈 화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안점이 이 빈 화면 위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결국 우리는 여전히 허기지게 됩니다.

신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당신은 귀 기울이는 순간에 그러한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한 귀 기울임 안에는 수용도 거절도 없으며 귀 기울임 자체만 존재합니다.

무언가의 부재에 주안점을 두지 마세요. 자기자신에게 '내가 이 부재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같은 있음, 존재함을 대상화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근원적인 주의, 근원적인 침묵에 가 닿을 것입니다. 당신이 부재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그 순간, 틈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구루와 제자 사이에 마법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이런 흐름, 이 같은 교류의 본질은 동질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는 말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도 없으며, 가르침을 받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비개인적인 차원에 존재합니다. '많다'라는 개념은 일체감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체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의 집단과 함께할 때 더 강한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에 당신이 완전히 흡수되는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을 때 말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리이자 하나의 상징입니다. 말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가리킬 뿐이지요. 말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면, 그 대상이 구체화됩니다. 말이 대상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 대상은 구체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은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거죠. 당신은 하늘이며 구름이 나타날지도 모르지

만, 하늘은 구름의 출현에 영향을 받지도 연루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구름은 여자나 남자, 또는 하나의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늘 맑고 푸른 하늘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귀기울임이겠지요?

그것은 어떤 결론도 내림 없이, 이미 알려진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귀기울임입니다. 시공간 안에서 객관적인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귀기울임은 아무런 참고대상도 없게 됩니다. 비객관적인 것을 참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귀기울이는 것은 당신 안에서 끝을 맺고 다시 순수한 귀기울임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합니다.

순수하게 귀기울이는 일은 신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에도 신뢰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긴 합니다만, 신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그러한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한 귀기울임 안에는 수용도 거절도 없으며 귀기울임 그 자체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귀기울임을 방해합니까? 귀기울임은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귀를 기울일 때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자기자신의 견해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실제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받아들입니다. 과학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동료는 어떻게 자신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고 이 간접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같은 과정을 거쳐 직접적인 체험으로 그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과 당신자신과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단계에 대해 말한다면,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통괄해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고 관찰하십시오.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스승에게로 인도한 첫 번째 단계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승은 전망을 제시해줍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Ease of Being』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진 클라인** Jean Klein | 프랑스 작가, 영적 스승, 아드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anta(비이원주의) 사상가. "자발적인 내적 고요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본성, 순수 의식 자체에 눈뜰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 브르노Brno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빈과 베를린에서 음악과 의학을 공부했다. 1933년에 프랑스로 와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레지스탕스에서 활동했다. 1950년경 인도로 떠나 3년 간 요가를 공부했다. 그때 아드바이타의 영적 스승을 만났고, 서양으로 돌아와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영면에 들었다. 저서로는 『Be Who You Are』, 『Ease of Being』, 『Who Am I? The Sacred Quest』 외 다수가 있다.

역자 | **박승숙** | 〈지금여기〉 번역위원